

# 경제적인 23평형 주택

23sq. M Low-Cost Residence

Designed by Khu Kwan 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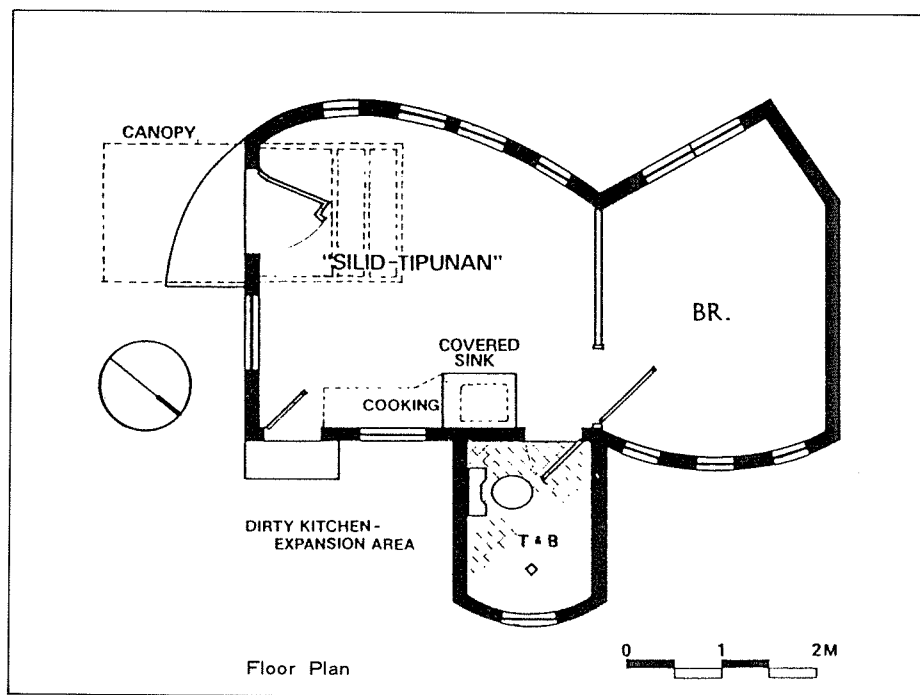
건축설계작품 : 경제적인 23평형 주택

건축사 : NHU KWAN TU

Napolexander B. Mina (설계 원장)

Crisma C. Mina (보조 설계사)

주소 : 42 Miami St., Cubao, Quezon City, Philippines



## 설계작품의 개념

건축양식이란 자국의 문화를 반영케 하는 매개체로서 그 나라의 문화를 측정케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 문화를 측정할 때에는 전통관념에서 본 형식과 기능의 이중적 가치판단 뿐만아니라 건축양식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그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력등도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 이론

본 설계작품은 필리핀의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건축양식을 배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하고, 또한 이 건축물을 시도함으로써 필리핀의 문화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 이론이 현대건축이 당면한 문제점에 전적으로 처방책이 된다는 것 보다는 한가지 새로운 잇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을 위한 대안책이란 필리핀 국민의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이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문화권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훌륭한 매개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일개의 피상적인 요소가 모여 하나의 집합적인 구성체가 될 때 그것은 물질적인 존재인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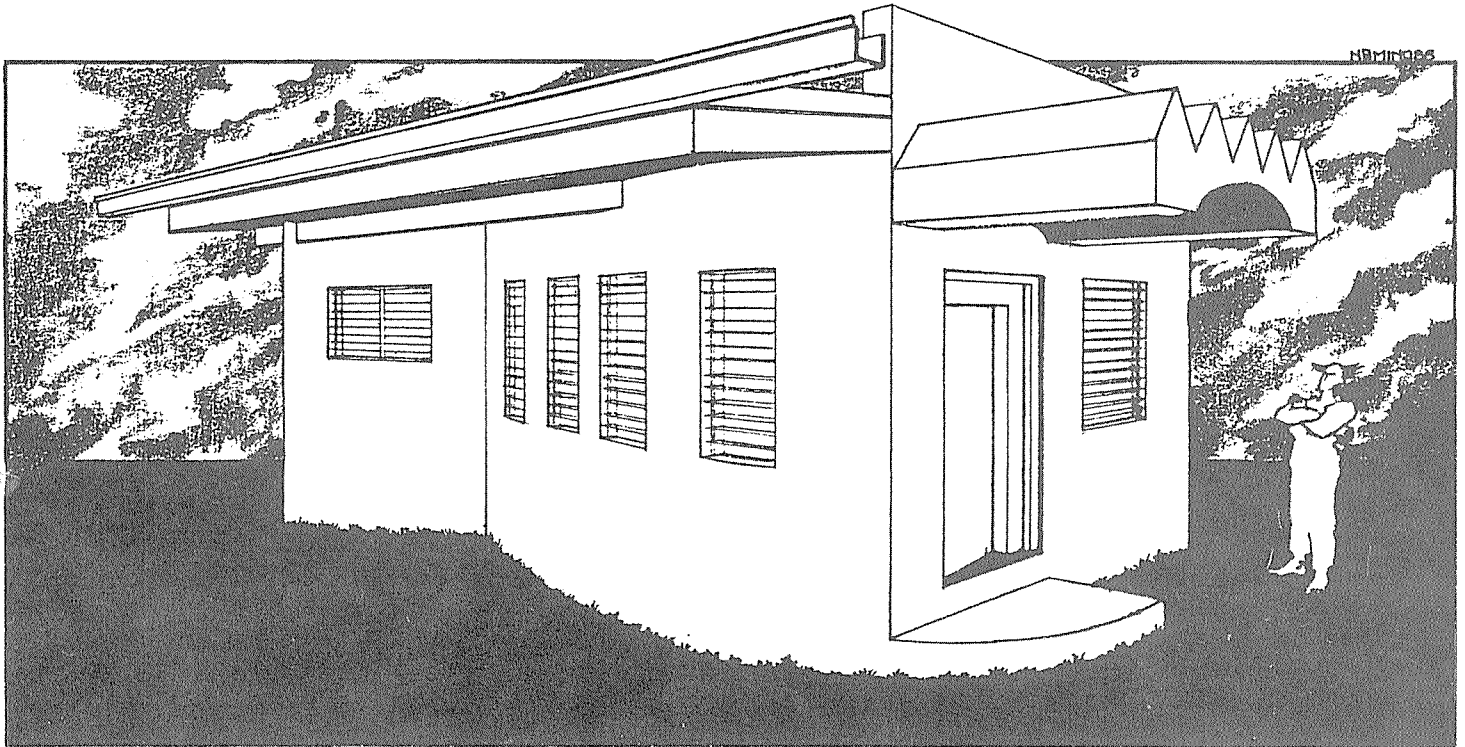
이 매개체의 심장부에는 문화의 힘을 발생케 하는 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필리핀 국민의 가장 가치있는 두가지 문화성인 "Pakikisama" 와 "hiya" 가 놓여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의 가치성은 공동도덕을 유지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은 또한 원만한 상호 인간관계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후자의 가치성인 "hiya" 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수줍음"이란 뜻이다. 실제적인 문화적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상태를 초월하고 강한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며 동시에 사회를 위한 통제 또는 제약의 역할로서 질서와 도덕을 확립시키고 유지 시킨다.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하여 논리적 엄격성은 피하고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건축 매개체의 효율성 평가 기준은 형식과 기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매개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그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본 이론은 전달과 반응의 이중성을 참조로 하여 전개되어질 것이다.

더우기, 매개체는 그 이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고안되어져야 한다. 매개체의 도구가 무엇인가는 본 논문을 통해 필리핀 국민의 공간 이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되어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논하는 그들의 개념이란 필리핀 사회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형성되어 온 그들의 열렬한 가족지향주의와 인격주의 이다. 이러한 주의는 그들의 사회적인 가치이자 규범이며, 또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범세계적인 가족적관계 지향과도 연결된다. 그러므로, 필리핀지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경향이 짙다. 그들의 공간 이용은

**PROJECT** :23 sq.m. low-cost residence  
**ARCHITECT** :NHU KWAN TU;Napolexander B. Mina, principal designer; Crisma C. Mina, design collaborator  
**ADDRESS** :42 Miami St., Cubao, Quezon City, Philippines



#### THE CONCEPTUAL FRAMEWORK:

An architecture that is reflective of its culture presupposes an architecture that is effective. This effectiveness shall not only be demanded from such traditional criterion of evaluation as the dualism of form and function but also exacted from the architecture's efficiency to transmit symbols and evoke a potent cultural realm.

#### THE RATIONAL

This project does not strive to be iconoclastic of traditional and prevalent architectural approaches in the Philippines. It is rather, merely an explorative attempt to discover an alternate avenue at perceiving and experiencing Filipino culture through architecture.

As such, this project offers not a prescriptive solution but simply aff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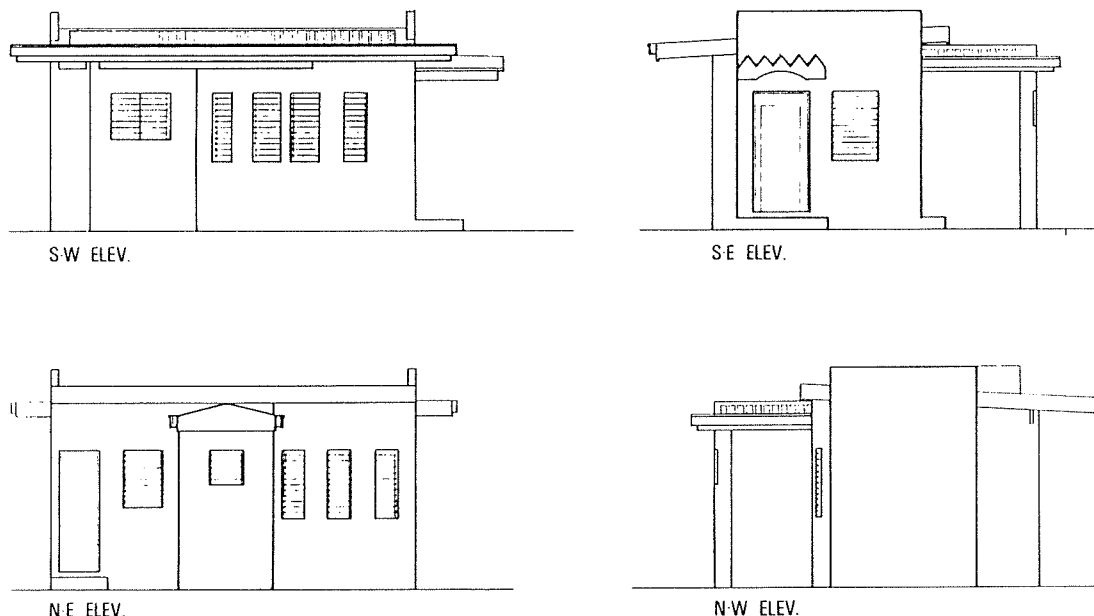
one a fresh vantage point.

Such an avenue is attained by exploiting and employing dominant Filipino cultural values to create an eminent medium able to effectively transmit symbols and evoke a potent cultural realm. Manipulated formal and surface elements which make a structure tangible collectively constitute the physical presence of this medium. But at the heart of this medium lies the dynamics of Filipino social relations, the mechanics of which is generated by the interplay of the two most pervasive Filipino cultural values, "pakikisama" and "hiya". Simply put, the former value is synonymous with the maintenance of good public relations and is a major factor in the Filipino's all too present desire for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latter value in turn can be literally translated to mean shame. However, in its actual cultural context,

"hiya" transcends its psychological character and assumes a powerful sociological dimension. It becomes a social control/sanction which seeks to achieve and maintain moral order. For purposes of literary expediency the rigors of dialectics shall be eschewed here and instead only a brief rationale shall be presented.

To note, the criteria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this medium, this architecture, will not be confined to form and function. It shall, as has been noted earlier, be exacted from the medium's efficiency to transmit symbols or cues and its ability to evoke a cultural realm; an environment potent enough to enable one to live one's culture.

The criteria shall henceforth be referred to in this paper as the dualism of transmission and evocation. Furthermore, a tool has to be devised to



먼저 사회와 공중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점이 “필리핀 국민의 친절성”이란 문화적인 징표로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본 설계작품은(경제적인 소주택)이러한 이론의 토대위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한다. 우선 사람이 주택에 접근하면 현관문을 통해 신호가 울린다. 현관문 위에는 박공지붕이 있고 옆에는 외팔보가 있어 토착적인 필리핀 주거양식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관문이 닫혀있지만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새로운 주택구조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에 있는 외팔보창은 G.I. 와 판재로 만들어져 있고 비록 골조모양이긴 하나 주택내부와 같은 길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건축적 고안을 통해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의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사실상 이것은 그보다 더한 의도를 지니며 그것은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인 “Pakikisama”와 “hiya”의 일반적인 개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누구든지 필리핀 사람이면 방문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려는

“Pakikipagkapwatao”(“Pakikisama”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성/일종의호의)의 관습이 있는 반면에, 방문객으로 하여금 “hiya”(일종의 부담감)의 거북한 느낌이 들게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역설은 집주인이 방문객에게 들어오라고 계속 권유하는 동안 방문객은 그것을 계속 사양하는 행동을 보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묘한 심리적인 결전을 벌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테라스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며, 따라서 건전한 문화사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주택현관에 설계된 닫집모양의 차양은 방문객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전자와 같은 역설적인 행동의 모순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필리핀 주택은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필리핀의 일반적인 주택들은 도시전 시골이건 간에 다음과 같은 테라스,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욕실, 그리고 침실등을 갖추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을 이용하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공중성을 참작하여야 할것이다. 필리핀 사회의 문화적인 면과 공간 이용면에서 볼때, 개인주의적인 분리는 사실상 필리핀 고유의 미덕인 “Pakikipagkwa”의 부족이며 상호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필리핀사회 문화가 관여하는 한 위와같은 분리형식의 공간이용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문화적 소산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있다면 그것은 방문객이 어느집을 방문했을때(그가 손님이건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건 간에)그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방문객이 식사 도중에 오게되면 식사하는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해서 식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의 그러한 열성적인 행동이 외국인 눈에는 역설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이것은 다만 방문객을 그렇게 호의로 받아들임으로써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건축상의 공간 변형이다. 선진국의 문화에 영향을 입어 자국문화에 맞지않는 거실, 식당 그리고 부엌등의 공간분리는 꼭 사회적인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설계에서는 이러한 분리를 막고 공간을 하나로 통일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통일된 공간은 “silid-tipunan”이라 불리우며 집회나 모임의 장소란 뜻을 지니고 있다.

“tipunan”에는 벽이나 칸막이가 같은 분리대를 없애고 오락과 식사를 위한 가구등도 없앴다. 또한, 부엌 싱크대나 조리대 등은 건축적으로 잘 처리되어 있어서 새로운 공간과 풍토적인 면을 보여주고있다.

건축물의 구조는 직사광선과 비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되어있고 벽은 지진의 강도를 견디어 낼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건축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둥 없이 특별히 설계되었음)또한 건물 대지의 특수한 지형은 다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deencloses”라 불리우는 지역의 모든것을 종합해 볼때, 설득력있는 건축 매개체는 새로운 창조에 기여하게 되고, 이에 의해서만이 외부로부터 잘못받아 들여진 가공물질은 환경에 방해없이 필리핀 자국 건축을 재평가할 수 있게된다. 자국의 문화를 하나의 인격으로 볼때, 개개인의 부주의한 표현이 곧 문화의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강력한 사회적 유산의 견지에서, 본 이론은 다름 아닌 필리핀의 문화의 영역을 일깨워주는 역할의 일부분이 될것이다.

facilit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dualism. This tool will be known in this paper as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Very briefly, the theory capitalizes once again on Filipino values and social norms which have cumulatively molded the Filipino to be fervently family oriented and personalistic, and largely because of these has come to possess a world-view that yearns for immersion in kin-like interactions and relations. Thus, Filipino territoriality tends more than anything else to accommodate rather than keep somebody at bay. Filipino space is postulated then as perceivable access to public and other social interactions. This accounts for that all too familiar cultural trademark known as "Filipino hospitality".

Now, notwithstanding its stringent budget, this project (a small residence even by low-cost housing norms) nonetheless strives to make maximum use of this theory. Thus, as one approaches the house, the initial cue of accommodation is transmitted by way of the main door. Its presence, as a matter of course, is emphasized by a cantilevered canopy formed by a series of miniature gables (an abstraction of the indigenous gabled huts). The door itself is constructed such that it presents a partially open appearance even if it is actually closed.

This innovation, although not meant to be "trompe l'oeil" piece per se, evokes from the approaching visitor the perception of access thereby setting up an initial expectation and impression that an environment of hospitality is forthcoming.

Moreover, the cantilevered canopy, which is of timber construction with G.I. sheathing, penetrates at an equal length into the interior of the house albeit in a skeletal form. Ostensibly this device can be readily construed as another way of putting across that architectural cliché of "bringing the outside to the inside". It is in fact more than that, it mediates a common Filipino behavioral paradox result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pakikisama" and "hiya". Whereas the culturally expected behavior from any Filipino is to be accommodating to visitors ("pakikipagkapwa-tao", which is a trait closely related to "pakikisama") the natural tendency or reaction of the visitor is to feel "hiya". This paradox results in a social tug-of-war where the visitor exhibits threshold behavior while

the owner of the house insists that the former come in.

This situation is further unwittingly compounded by the presence of a terrace since this space will contingently serve as the visitor's threshold space. Consequently, the evocation of a probable healthy cultural realm is truncated if not totally frustrated. The trans-area canopy resolves this paradox because it not only discourages threshold behavior but also transmits directional cues towards the inside.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finally comes into full play inside the house necessitating a drastic reinterpretation of commonly accepted spatial requirements and arrangements in the Filipino house.

Normally a typical Filipino house, whether in an urban or rural setting, would have the following spatial requirements: a terrace, living area, a dining area (or a living/dining area), a distinct kitchen area (a "dirty kitchen" usually complements this), a toilet and bathroom, and bedrooms. The hierarchy of spaces commonly follows the exigencies of public to less public progression. Note, in the Filipino culture and as indicated by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the concept of privacy is actually considered the lack of the trait "pakikipagkapwa-tao" and consequently anathemic to the cultivation of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points, at the very least, to an inefficiency in such an architectural status quo as far as the culture is concerned. For the Filipino, the natural and expected cultural corollary of inviting a visitor into one's house (whether he is a guest or a total stranger) is to offer him something to eat or drink. Moreover, should the visitor arrive during mealtime, joining the family at the table is the expected consequence. Complementing all these is the unstated requirement of putting the visit at ease by way of, paradoxically enough in the eyes of foreigners, solicitous conversation.

The theory, more importantly, proposes growth from the architectural status quo and a spatial transformation is required to initiate this growth. The theory furthermore suggests that transformation is attained by first setting aside the prevailing culturally incongruous mined-set which mandates that the Filipino living, dining, and

kitchen areas (notwithstanding a pseudo living/dining area) are symbolically and even sociologically demarcated spaces. Thus, in lieu of these perceived demarcations, a unifying space is introduced. In this project, the space is called "silid-tipunan" which approximately means room for congregation or gathering. The "tipunan" not only does away with obvious demarcation symbols like wall divisions and free-standing partitions but also dispenses with subtle cues such as distinct sets of furniture for entertaining and eating. Furthermore, the kitchen sink as well as the cooking appliances are so architecturally treated that they become virtual furniture pieces endemic to the new space. Outside its utilitarian role of deflecting direct solar and rain intrusions and its structural function of providing folded wall strength to counteract seismic forces (the structure was specifically designed without columns to reduce construction costs), the peculiar formal configuration of the space does serve another purpose. It "deencloses" the area by virtue of the animated and dynamic nature inherent to curvilinear walls. This is an important sensorial cue in light of that environment predicted by the theory of Filipino space.

All these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ogent architectural medium, in fact, an architecture that enables the Filipino to self (as differentiated from self-expression) without the artificial impediments of an ill-conceived physical environment. Being the unit personification of his culture, expression of the self inadvertently translates to expression of a segment of that culture. Taken collectively and seen within the inherent interactive framework of a dynamic society, this comes to nothing less than a cultural realm evoked.